1941년 7월 3일 이오시프 스탈린의 방송 연설

SalvadorAllende

동지들! 공민들!

형제 자매들!

우리 소련의 육해군 병사들!

나의 친구들이여! 나는 당신들에게 호소한다!

1941년 6월 22일에 히틀러 독일이 우리 조국에 감행한 배신적인 무력 침공은 계속되고 있다. 붉은 군대의 영웅적 저항이 있었고 이미 적의 정예 사단들과 우수한 항공 부대들이 격파되어 전장터에 파묻혔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전선에 새로운 병력을 투입하면서 계속 진격하고 있다. 히틀러 군대는 리투아니아를 점령하고 라트비야의 대부분과 백러시아의 서부 및 서부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점령했다. 파쇼의 항공대는 자기 폭격기틀의 활동 구역을 확장하여 무르만스크, 오르사, 모길로프, 스몰렌스크, 키예프, 오데사, 세바스토폴을 폭격하고 있다. 우리 조국에는 엄중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어찌하여 우리의 영예로운 붉은 군대가 나라의 여러 도시와 지역을 파시스트 군대에게 내주게 되었는가? 과연 독일 파쇼 군대는 거만한 파시스트 선전다들이 쉴새 없이 지껄이는 것처럼 정말로 백전배승의 군대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역사에는 백전백승의 군대란 없으며 또 있은 적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나폴레옹 군대가 백전백승의 군대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그 군대는 러시아, 영국, 독일 군대에게 번갈아 가며 격파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의 빌헬름 군대 역시 백전백승의 군대로 인정받고 있었지만 그 군대 도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군대에게 수차례 패배를 당하였으며 결국은 영국 프랑스 군대에게 격파되었다. 오늘의 히틀러 독일 파쇼 군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이 군대는 유럽 대륙에서 아직 본격적인 저항을 받아보지 못했다. 이 군대는 다만 우리 영토에서만 본격적인 저항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저항의 결과 독일 파쇼 군대의 정예 사단들이 우리의 자랑스런 붉은 군대에게 격파되었는데 이것은 히틀러 파쇼 군대도 나폴레옹 군대나 빌헬름 군대가 격파 된 것처럼 그렇게 격파될 수 있으며 또 격파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 영토의 일부가 독일 파시스트 군대에게 점령당했다는 사실을 말하자면 그것은 주로 소련을 반대하는 파쇼 독일의 전쟁이 독일 군대에게는 유리하고 소련 군대에게는 불리한 조간 하에서 개시되었다는 것으로써 설명된다. 이것은 전쟁을 진행하는 나라인 독일의 군대가 이미 완전히 동원되고 독일이소련에 투입할 170개 사단이 소련 국경에 진출하여 완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공격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소련 군대는 그때서야 동원되어 국경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파쇼 독일이 전 세계에서 침략국으로 인정 받으리라는 것도 고려하지 않고 1939년에 체결된 독-소 불가침 조약을 불의에 배신적으로 위반하였다는 사실도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물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나라는 솔선수범해서 조약을 위반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배신의 길에 들어 설 수 없었다.

혹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떻게 소련 정부는 히틀러나 리벤트로프와 같은 배신적인 악한들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는가? 이 점에서는 소련 정부가 착오를 범한 것이 아닌가? 물론 착오가 아니다! 불가침 조약이란 양국 간의 평화 조약이다. 1939년에 바로 이러한 조약을 독일이 우리에게 제의했던 것이다. 소련 정부가 이러한 제의를 거절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어떠한 평화 애호 국가도 그 이웃 나라가 히틀러나 리벤트로프 같은 그런 악한이나 식인종들의 지도를 받는다 해도 그 나라와의 평화 협약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하나의 필수적 조건 하에서만 즉 평화 협약이 그 평화 애호 국가의 영토 완정과 독립과 영예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저촉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그렇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독일과 소련 간의 불가침조약은 실로 이런 조약인 것이다.

우리는 독일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여 무슨 이득을 보았는가? 우리들은 1년 반 동안 우리나라에 평화를 보장했으며 그리하여 파시스트 독일이 조약을 위반 하고 함부로 우리나라를 침공하였을 때 그 반공에 필요한 자기의 역량을 준비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본 이득이며 파쇼 독일의 손실이다.

파시스트 독일은 배신적으로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하여 어떤 이득을 보았고 어떤 손해를 보았는가? 독일은 그렇게 함으로써 잠시 자기의 군대에 약간의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독일은 전 세계의 면전에서 피에 굶주린 침략자로서의 정체를 폭로하여 정치적으로 손실을 보았다. 독일에 있어서 이 잠시 동안의 군사적 이득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소련의 거대한 정치적 이득은 중요하고 장구한 요인으로서 그에 기초하여 파쇼 독일과의 전쟁에서 붉은 군대의 결정적인 접파가 확대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용감한 전체 육군, 우리의 용감한 전체 해군, 우리의 매들인 전체 공군,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의 선량한 사람들, 또한 독일의 선량한 사람들까지도 모두다 독일 파시스트들의 배신적 행동을 규탄하고 있으며 소비에트 정부를 동정하며 소비에트 정부의 입장을 찬동하면서 우리의 위업이 정당하다는 것과 적은 격파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강요된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극히 잔인하고 교활한 원수인 독일 파시즘과의 결사전에 들어 섰다. 우리 군대는 전차와 비행기로 발톱까지 무장한 원수와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다. 붉은 육해군은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면서 소련 영토 한치라도 수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고 있다. 수천 대의 전 차와 비행기로 무장한 붉은 군대의 주력군이 전투에 들어 서고 있다. 붉은 군대 병사들의 용감성은 전례 없는 것이다. 적에 대한 우리의 반격은 나날이 강력 해지고 있다. 붉은 군대와 함께 전체 소련 인민이 조국 방위에 일어서고 있다. 우리 조국에 드리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며 또 적을 격멸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취해야 하겠는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 소련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위험을 이해하며 전쟁 전에는 있을 수 있었으나 전쟁으로 인하여 정

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금에 와서는 유해로운 안일성과 무관심성, 평화적 건설 기분을 버리는 것이다. 원수는 잔인하고 집요하다. 그들은 우리의 땀이 스며든 우리의 영토를 빼앗으려 하며 우리의 노동으로 이룩한 우리의 곡물과 원유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 그들은 지주 정권을 복구하고 전제 제도를 복구하며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 리투아니아인, 라트비아인, 에스토니아인, 우즈베키스탄인, 타타르인, 몰디바인, 그루지아인, 아르메니아인, 아제르바이잔인 및 소련의 기타 자유로운 민족들의 민족 문화와 민족국가를 파괴하며 또 그들을 독일인화하며 그들을 독일의 공작과 남작의 노예로 만들려 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소비에트 국가의 존망과 소련 인민들의 생사에 대한 문제, 소련 인민들이 자유롭게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속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필요한 것은 소련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무관심한 사람으로 되지 않도록 하며 그들이 자각적으로 동원되어 자기들의 모든 사업을 원수에게 무자비한 새로운 전시 태세로 개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대열내에 불평분자와 비겁분자, 낙만분자와 도피분자들이 없도록 하며 우리 사람들이 투쟁에서 두려움을 모르고 파쇼 압박자들을 반대하는 우리의 조곡 해방 전쟁에 헌신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국가를 창립한 위대한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용감성, 강의성, 전투에서의 대담성, 우리 조국의 원수를 반대하여 인민과 함께 싸우려는 각오는 소련 사람들의 기본적 기질로 되어야 한다고. 볼셰비키의 이 훌륭한 기질을 수백만 명의 우리 붉은 군대 육해군과 소련 전체 인민이 소유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업을 즉시 전시 태세로 개편하여 전선의 이익과 원수의 격멸을 조직하는 파업에 복종시켜야 한다. 소련 인민들은 지금 독일 파시즘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노동과 행복을 보장하여 준 우리 조국에 대하여 극도의 증오와 적의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소련 인민들은 원수를 반대하여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향토를 지켜 일어서야 한다.

소련의 붉은 육해군과 전체 공민은 소련 영토 한치라도 고수하여야 하며 우리의 도시와 마을을 지켜 마지막피 한 방울까지 바쳐 싸우며 우리 인민의 기질인용감성, 창발성, 민활성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는 붉은 군대 원호 사업을 백방으로 조직하고 그 대열에 유력한 증원병을 보장해주며 그 군대에 일체 필수품을 공급하며 병사와 군수품을 신속히 수송하며 부상병 원호 사업을 광범히 조직해야 한다. 우리는 붉은 군대의 후방을 강화하고 일체 사업을 거기에 복종시키며모든 기업소의 사업을 강화하고 소총, 기관총, 대포, 탄환, 포탄, 비행기 등을 더 많이 생산하며 공장, 발전소, 전신, 전화 시설의 보위 사업을 조직하며 지방의대공 방어를 조직해야 한다.

우리는 후방의 온갖 와해분자, 도피분자, 낭만분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자들과 무자비한 투쟁을 조직하고 간첩, 암해분자, 적의 낙하산병을 소멸해야 하며 이러한 모든 점에서 우리의 추격 대대를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 원수들은 기만하고 유언비어를 퍼트림에 있어서 교활하고 음흉하며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 야 한다. 이 모든 사실을 타산하며 악선동에 넘어 가지 말아야 한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당황망조하고 비겁한 행동으로 국방 사업을 방해하는 자는 즉시 모두 군사 재판에 넘겨야 한다.

붉은 군대의 부대가 부득이 퇴각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철도윤전 기재를 옮겨 가며 적에게 한 대의 기관차, 한 대의 차량도 넘기지 말며 적에게 1kg의 곡물, 1L의 연료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콜호즈원들은 전체 가축을 몰고가며 곡물은 국가 기관에 맡겨 그것을 후방 지역으로 옮기도록 하여야 한다. 운반할 수 없는 유색 금속, 곡물 및 연료를 포함하여 귀중한 재산은 무조건 모두 없애 버려야한다. 적에게 강점된 지역들에서는 적의 부대와 투쟁하며 도처에서 유격전을 일으키며 도로와 교량을 폭파하며 전신, 전화시설을 파괴하며 산림, 창고, 화물에 불을 지르기 위해 파괴조를 조직해야 하며 기병과 보병으로 된 유격 부대를 조직해야 한다. 이미 강점된 지역에서는 적과 그 주구들에게 견뎌낼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놈들을 매 걸음마다 추격하여 섬멸하고 그들의 모든 계책을 파탄 시켜야 한다.

파쇼 독일과의 전쟁을 보통 전쟁이라고 인정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두군대 사이의 전쟁만이 아니다. 그것은 동시에 독일 파쇼군대를 반대하는 전체 소련 인민의 위대한 전쟁인 것이다. 파쇼 정복자들을 반대하는 이 전 인민적 조국 전쟁의 목적은 비단 우리나라에 드리운 위험을 청산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 파시즘의 기반 밑에서 신음하는 유럽 전체 인민을 도와 주려는 데도 있는 것이다. 이 해방전쟁에서 우리는 고립되여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위대한 전쟁에서 우리는 유럽과 아메리카의 각국 인민이라는 믿음직한 동맹자를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 조국의 자유를 위한 우리의 전쟁은 유럽과 아메리카 각국 인민드르이 독립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한 투쟁과 합류할 것이다. 그것은 히틀러 파쇼 군대 의 정복이나 또는 정복의 위험을 반대하여 자유를 고수하는 인민들의 통일 전선으로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련을 원조하겠다는 영국 수상 처칠의 역사 적 연설과 우리나라를 원조할 용의가 있다는 미국 정부의 성명은 소련 인민의 가슴 속에 오직 감사의 느낌을 자아낼 따름인데 이 연설과 성명은 충분히 이해 할만하며 또 교훈적인 것이다.

동지들! 우리의 역량은 무궁무진하다. 자고자대하던 원수는 얼마 안 가서 반드시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붉은 군대와 함께 수천 명의 노동자, 콜호즈원, 인 텔리겐치아들이 우리에게 달려든 원수와의 전쟁에 궐기하고 있다. 수백만 명의 우리 인민이 일어날 것이다.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의 근로자들은 벌써 붉은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천 명의 민병조직을 만드는데 착수하였다. 적이 침공할 우려가 있는 도시마다에서 우리는 이러한 민병을 조직하고 전체 근로자들을 투쟁에 궐기시켜 독일 파시즘을 반대하는 우리의 조국 전쟁에서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영예와 자기의 조국을 자기의 목숨으로 수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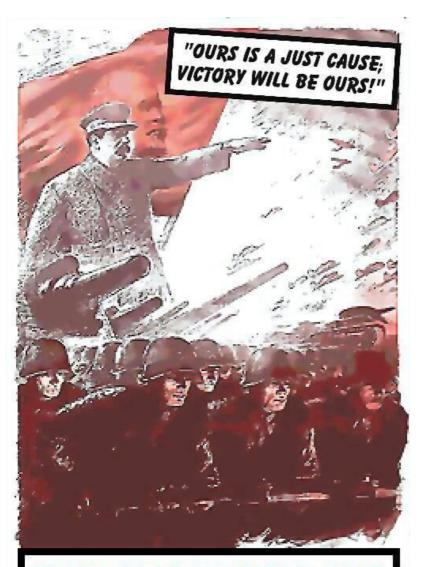
소련 인민의 일체 역량을 신속히 동원할 목적으로 또 우리 조국에 배신적으로 침입한 원수에게 타격을 주기 위하여 국방 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지금 국가의 모든 정권은 그 수중에 집중되어 있다. 국방 위원회는 자기의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리 하여 전체 인민에게 붉은 육해군을 헌신적으로 지원하며 원수를 때려 부수고 승리하기 위해 레닌 스탈린 당과 소련 정부의 주위에 뭉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우리의 영웅적인 붉은 육군과 우리의 영예로운 붉은 해군의 지원으로!

인민의 모든 역량을 원수의 격멸로!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앞으로!

1941년 7월 3일 이오시프 스탈린의 방송 연설



FOR THE MOTHERLAND